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ol. 57, No. 2

OPEN ACCESS

고양이 매개 읽기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 아동의 읽기 수행 능력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a Cat-Assisted Reading Program on the Reading Performance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문 현 민 (Hyun-Min Moon)*
한 진 수 (Jin-Soo Han)**
이 정 익 (Jeong-Ik Lee)***

〈 목 차 〉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Ⅴ. 논 의
Ⅵ. 결론 및 제언

요 약 :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고양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동물매개 읽기 프로그램의 적용 가능성과 읽기 수행 능력의 변화를 탐색하고자 초등학교 2~3학년 다문화가정 아동 4명을 대상으로 총 12회기의 동물매개 읽기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한국어 읽기 검사(KOLRA)도구를 활용하여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읽기이해 영역에서 전반적인 향상 경향이 나타났으며, 해독, 문단글 읽기 유창성 및 듣기이해 영역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일부 아동은 평균 이하 수준에서 평균 범위로 이동하였으며, 읽기 자신감 향상, 자발적 참여 증가, 읽기 속도 조절 등의 행동 변화도 나타났다. 본 연구는 표본 수가 적은 탐색적 연구라는 한계를 지니지만, 고양이 기반 동물매개 읽기 프로그램의 교육적 활용 가능성과 다문화가정 아동의 읽기 수행 및 정의적 요인에서의 긍정적 변화를 탐색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어 : 동물매개 읽기 프로그램, 다문화가정 아동, 읽기이해, 문해력, 고양이, 동물매개교육

ABSTRACT : This study aimed to explore the feasibility of an animal-assisted reading programme, in which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read books to cats, and to examine changes in their reading performance. To this end, a total of 12 sessions of the animal-assisted reading programme were conducted with four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in Years 2 and 3 of primary school. Pre- and post-tests were conducted using the Korean Reading Assessment (KOLRA), and the results showed an overall trend of improvement in the reading comprehension domain, as well as positive changes in decoding, paragraph reading fluency and listening comprehension. Some children progressed from below-average to average levels, and behavioural changes were also observed, including improved reading confidence, increased voluntary participation and better control of reading speed. Although this study has the limitation of being an exploratory study with a small sample size, it is significant in that it has tentatively confirmed the educational potential of an animal-assisted reading programme using cats, as well as positive changes in the reading performance and affective factors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KEYWORDS : Reading Education Assistance Dogs,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Reading Comprehension, Literacy, Reading Cats, Animal-assisted Education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바이오힐링융합학과 박사수료
(meiin7942@naver.com / ISNI 0000 0004 9330 8986) (제1저자)
**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일반대학원 바이오힐링융합학과 명예교수
(labvet@konkuk.ac.kr / ISNI 0000 0004 6463 7190) (공동저자)
***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일반대학원 바이오힐링융합학과 교수
(jeongik@konkuk.ac.kr / ISNI 0000 0004 6770 7772) (교신저자)

• 논문접수: 2026년 5월 14일 • 최초심사: 2026년 6월 5일 • 게재확정: 2026년 6월 18일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7(2), 279-302, 2026. http://dx.doi.org/10.16981/kliss.57.2.202606.279

※ Copyright © 2026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Ⅰ. 서 론

2024년 기준, 국내 다문화가구는 약 43만 9천 가구로 추산되었으며(여성가족부, 2024), 한국교육개발원과 교육부의 「2025 교육기본통계 주요 결과」에 따르면 초·중등 다문화학생 수는 193,814명으로 전체 학생의 약 3.8%를 차지하였다. 2025년에는 다문화학생 수가 처음으로 20만 명을 넘어선 202,208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전체 학생 대비 비율 또한 약 4.0%까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교육개발원, 교육부, 2025).

이와 같은 변화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국내 교육환경의 구조적 변화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통계청과 여성가족부 자료에서도 다문화가구 수의 지속적인 증가가 보고되고 있으며(여성가족부, 2024; 통계청, 2024), 학교 현장에서는 다문화 학습자의 언어·문해 역량과 정서적·동기적 특성을 함께 고려한 교육지원 체계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다문화가정 아동의 읽기부진은 이주배경이 없는 아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으며, 선행 연구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아동의 읽기 수행이 비교집단에 비해 낮았는데, 특히 어휘력과 읽기이해 영역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배소영, 김미배, 2010). 또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분석에서도 다문화가정 학생의 국어과 성취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았다(신진아, 2012). 국제결혼 및 노동 이주의 영향으로 다문화가정과 다문화학생의 규모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교육 현장에서는 언어 및 기초학력 지원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교육부, 2025).

다문화가정 아동의 읽기부진은 가정의 언어 환경, 학습지원 자원, 사회문화적 경험 및 정의적 요인 등이 복합적인 영향을 미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구조적인 환경 속에서 읽기부진은 단순한 기술 결손의 문제가 아니라 읽기불안, 반복된 실패 경험, 낮은 자기효능감 및 과제회피 행동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경험이 누적될 경우 아동은 읽기 활동 자체를 기피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읽기연습과 문해경험의 기회가 감소하는 악순환을 형성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읽기불안은 작업기억 자원을 소모하여 읽기 수행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반복되는 실패 경험으로 인해 자기효능감을 감소시켜 과제 지속을 약화시킬 수 있다(Bandura, 1977). 또한 낮은 읽기동기와 부정적인 읽기태도는 읽기회피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읽기경험과 학습 기회를 축소시키는 등 학업적 악순환을 형성할 위험이 있다(Morgan & Fuchs, 2007; Wigfield & Guthrie, 1997).

한국 교육정책은 「기초학력 보장법」을 근거로 학습지원대상 학생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학습부진 학생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학업 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정 아동의 읽기부진은 가정의 언어 환경, 부모의 문해활동 경험, 사회문화적 경험 및 정의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백별아, 송진영, 2019; Kim & Yim, 2024). 따라서 표준화된 학습지원 프로그램

만으로는 이러한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언어적・사회문화적 특성을 함께 고려한 학습지원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특히 읽기 수행은 인지적 처리와 더불어 읽기태도, 흥미, 읽기참여 동기와 같은 정의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읽기에 대한 흥미와 참여는 읽기 수행과 밀접하게 관련되며, 읽기동기는 읽기 경험의 양과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Guthrie & Wigfield, 2000). 반대로 읽기 동기 저하와 부정적인 읽기태도는 읽기회피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읽기 기회를 축소시켜 수행 격차를 심화시킬 위험이 있다(Morgan & Fuchs, 2007; Wigfield & Guthrie, 1997).

최근 읽기 지원 분야에서는 문해력 향상을 위해 정의적 요인을 촉진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동물매개 읽기 프로그램은 아동이 평가받지 않는 환경에서 읽기를 경험함으로써 읽기불안을 감소시키고 읽기동기와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선행연구를 통해 동물매개 읽기 프로그램은 읽기 유창성, 읽기이해, 읽기태도 등에 긍정적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Hall et al., 2016; Le Roux et al., 2014).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개를 매개로 이루어졌으며 최근에는 고양이 기반 동물매개중재 연구도 일부 보고되고 있으나(Cleary et al., 2023), 읽기교육을 목적으로 한 프로그램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며, 다문화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고양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토한 연구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고양이는 비교적 조용한 접촉과 안정적인 사회적 행동을 보이는 특성을 보이며(Vitale & Udell, 2019), 이러한 특성은 읽기 상황에서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자발적 참여를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고양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동물매개 읽기 프로그램을 다문화가정 아동에게 적용하여 읽기 수행 능력의 변화와 프로그램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다문화가정 아동의 읽기 특성

다문화가정 아동의 읽기 발달은 단순한 읽기 기술의 문제를 넘어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부모의 영향을 받아 이주배경이 없는 아동에 비해 음운인식, 수용언어, 표현언어 능력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행능력을 보일 수 있다. 이러한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적 특성은 영아기의 어휘 발달에 영향을 미치며, 학령기에 들어서면서 읽기이해와 학업성취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장영은 외, 2019).

다문화가정 아동의 읽기부진은 단순한 개인의 읽기 능력 문제라기보다 가정의 언어 환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실제로 이중언어 환경에서 성장하는 아동의 초기 문해력과 어휘 발달은 가정 내 문해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부모의 직접적인 문해활동 경험은 읽기 관련 기술 발달과 유의미한 것으로 보고되었다(Kim & Yim, 2024). 읽기이해 능력은 단순한 해독 능력만으로 설명되기 어려우며, 어휘력과 언어이해 능력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다문화가정 아동의 읽기 지원은 언어 환경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고용환과 박시균(2023)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아동들은 사회적 편견과 차별 경험, 정체성 혼란 등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학습 참여와 학교 적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은 읽기에 대한 불안, 실패 경험, 자기효능감 저하와도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다. 반복적인 읽기 실패 경험은 읽기 과제를 회피하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읽기에 대한 경험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형성할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아동들을 위한 읽기 지원은 기술 중심의 접근뿐 아니라 읽기태도, 읽기동기, 읽기 자신감과 같은 정의적 요인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백별아, 송진영, 2019).

다시 말해 다문화가정 아동들은 학업과 가정 환경에서 겪는 언어적 어려움과 더불어 사회문화적으로 경험하는 심리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아동들에게는 읽기에 대한 긍정적 경험을 쌓고 자발적인 읽기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주목받고 있는 동물매개 읽기 프로그램은 읽기 수행뿐 아니라 정의적 요인을 함께 지원할 수 있는 대안적 교육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Hall et al., 2016).

2. 동물매개 읽기 프로그램(R.E.A.D.)의 개념과 효과

동물매개중재(Animal-Assisted Intervention, AAI)는 인간의 건강, 교육 및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동물을 포함하여 계획적으로 수행되는 목표지향적이고 구조화된 개입을 의미한다(IAHAIO, 2018). 동물매개중재는 목적에 따라 동물매개치료(Animal-Assisted Therapy, AAT), 동물매개교육(Animal-Assisted Education, AAE), 동물매개활동(Animal-Assisted Activity, AAA) 등으로 구분되며, 이 중 동물매개교육은 학업적・인지적・정서적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과정 또는 학습활동에 동물을 포함하여 운영하는 형태를 말한다.

동물매개 읽기 프로그램은 아동의 학습 참여와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는 교육적 접근으로 활용되고 있으며(Friesen, 2009), 읽기 유창성, 읽기이해, 읽기태도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대표적인 동물매개교육 사례이다(Steel, 2024).

동물매개교육은 평가 또는 인증을 받은 치료매개동물(Therapy Animals)과 함께 이루어지며, 치료매개동물은 안정적인 행동 적합성과 친사회성을 바탕으로 인간과의 상호작용에 참여하며, 대상자의 긍정적 변화와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치료매개동물은 특정 종

(species)에 한정되지 않으며, 프로그램의 목적과 동물의 적합성에 따라 개, 고양이, 말, 토끼 등 다양한 동물이 참여할 수 있다. IAHAIO(International Association of Human-Animal Interaction Organizations, 2018)는 동물매개중재가 인간뿐 아니라 동물의 안전과 복지를 함께 고려하여 운영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치료매개동물의 적절한 선발과 관리는 동물매개중재의 필수 요소로 제시되고 있다.

동물매개교육에 기반한 R.E.A.D.(Reading Education Assistance Dogs) 프로그램은 1999년 미국 ITA(Intermountain Therapy Animals)에 의해 개발된 동물매개 읽기교육 프로그램으로 리딩애니멀의 적합성 인증을 받은 치료매개동물과 R.E.A.D. 프로그램 교육을 이수한 활동가가 한 팀을 이루어 아동의 읽기 수행을 지원한다.

R.E.A.D. 프로그램에서는 읽기 활동에 참여하는 인증 동물을 통칭하여 리딩애니멀(Reading Animal)이라 하며 미국 R.E.A.D.본부는 Reading Education Assistance Dog(or cat)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읽기 활동에 참여하는 리딩애니멀의 범위를 개에 국한하지 않고 고양이, 토끼, 기니피그 등 다양한 치료매개동물로 확장하고 있다(Intermountain Therapy Animals, 2020).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동은 리딩애니멀을 비판하거나 평가하지 않는 청중(non-judgmental listener)으로 인식하며, 소리내어 책을 읽는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실수와 평가의 두려움을 줄이고 자기 속도에 맞추어 읽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Friesen & Delisle, 2012).

R.E.A.D. 프로그램은 동물을 단순한 교육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과 동물이 함께 읽기 경험을 공유하고 활동가와 상호작용하는 관계 중심의 동물매개교육이라는 점에서 비구조화된 동물 동반 독서활동과 차별성을 가진다. 기본적으로 R.E.A.D. 프로그램은 아동에게 개별화된 읽기 경험을 제공하지만 읽기 기술 향상만을 목표로 하지 않고, 아동이 독서를 즐기는 경험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기존의 읽기 지도 상황에서 경험할 수 있는 평가 불안과 수행 압박을 완화하고 아동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읽기 활동에 참여하도록 돕는다. 이처럼 아동들은 독서에 대해 긍정적 경험을 하고 읽기태도, 읽기동기, 나아가 읽기이해 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이 프로그램의 핵심 원리이다(Intermountain Therapy Animals, 2020).

국내에서도 동물매개 읽기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허순영과 홍현진(2013)은 개에게 책을 읽어주는 활동이 독서부진 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확인하였고, 이용준과 정혜승(2024)은 Reading To Dogs(RTD)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읽기태도, 읽기동기 및 읽기 자신감 향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다고 보고하였으며, 동물과의 상호작용이 학습자의 정서적 안정과 학습 참여를 촉진한다고 제시하였다. 이는 동물매개 읽기 프로그램이 읽기불안 감소와 동기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국외에서는 학교와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동물에게 책을 읽어주는 프로그램(Reading to Animals)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정서적 안정, 읽기동기 향상 및 읽기참여 촉진과 연결하는 교육적

접근으로 주목되고 있다.

실제로 동물매개 읽기 프로그램의 효과성은 다양한 연구를 통해 검증되었다. Le Roux et al.(2014)은 읽기부진 아동을 대상으로 10주간의 무작위 대조연구를 실시한 결과, 개에게 책을 읽어준 집단이 다른 비교집단에 비해 읽기이해와 읽기 유창성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Hall et al.(2016)의 체계적 문헌고찰 역시 연구설계와 측정도구의 차이로 인해 결과의 일관성에는 제한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동물매개 읽기 프로그램이 읽기 수행과 읽기 관련 행동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고 정리하였다.

한편 선행연구들은 읽기 능력 향상뿐 아니라 정의적 요인의 변화에도 주목하였다. Hall et al.(2016)은 읽기이해 향상 효과보다 읽기불안 감소, 읽기 자신감 향상, 읽기동기 증진과 같은 정서・행동적 변화가 비교적 일관되게 보고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Henderson et al.(2020)은 학교 기반 독서보조견 프로그램(Story Dogs)에 참여한 아동, 부모, 교사 및 활동가 면담을 분석한 결과, 읽기의 즐거움, 성취감, 자신감 향상과 같은 긍정적 경험이 반복적으로 보고되었다고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동물매개 읽기 프로그램이 읽기 수행 향상뿐 아니라 긍정적인 읽기 경험을 형성하고 읽기 참여를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개에게 책 읽어주기 활동은 아동의 책 읽기 속도와 읽기이해 점수 향상과도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으며, 읽기태도 및 독서에 대한 흥미도 역시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Kirnan et al., 2016). 이처럼 R.E.A.D. 프로그램은 읽기불안 해소, 읽기동기 및 읽기태도 향상, 반복적인 읽기 경험을 통한 읽기 유창성 및 읽기이해 능력을 개선할 잠재성을 가진다. 다만, 선행연구들은 개 중심으로 연구자료가 축적되어 왔고, 연구설계의 이질성과 소규모 표본이라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어 프로그램 효과의 일반화에는 신중한 해석이 요구된다. 따라서 동물매개 읽기 프로그램이 어떠한 조건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실증연구가 필요하다.

3. 고양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동물매개 읽기 프로그램의 가능성

본 연구는 국제적으로 운영되는 R.E.A.D. 프로그램의 교육 철학과 운영 체계를 참고하여 고양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으로 확장시켜 적용하였다. 비록 명칭에는 Dogs가 포함되어 있으나 ITA의 운영지침은 개 이외의 치료매개동물 참여를 허용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의 핵심은 특정 종 자체보다 아동이 평가받지 않는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읽기 경험을 반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있다.

본 연구는 기존 개 중심의 동물매개 읽기 프로그램을 고양이로 확장하여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고양이는 개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조용한 접촉, 낮은 활동성을 보이며 익숙한 환경과 친숙한 대상과의 관계에서 안정적인 사회적 행동을 나타낸다

(Vitale & Udell, 2019). 이러한 이유로 고양이는 개 공포, 소음 민감, 과잉각성 경향을 갖고 있는 아동에게 더 낮은 자극수준의 안정적인 상호작용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고양이는 자신의 생활환경에서 안정적으로 활동하는 영역동물의 특성을 가지므로 낯선 환경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다(Ellis et al., 2013). 이 때문에 고양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동물매개중재는 치료매개고양이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환경에서 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동물복지 측면에서 보다 적절할 수 있다.

'고양이에게 책 읽어주기'와 같이 읽기교육에 관한 실증연구는 부족한 실정이지만, 최근 고양이를 기반으로 하는 동물매개중재 연구가 점차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Cleary et al.(2023)은 자폐스펙트럼 아동 및 성인을 대상으로 고양이 기반 중재 연구를 검토한 결과, 고양이가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지원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Vitale와 Udell(2019)은 고양이의 낯선 사람에 대한 친사회성 행동과 안정적인 사회적 반응이 고양이매개중재 적합성과 관련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고양이 기반 중재활동에서 개체 선별과 행동 적합성 평가의 중요성을 시사하며, 치료매개고양이의 행동 특성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한편 고양이를 포함한 동물매개중재는 인간과 동물 모두의 안전과 복지를 전제로 수행되어야 한다. IAHAIO(2018), 미국수의사회(Americ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2019) 및 Pet Partners (2015)는 동물의 건강상태, 스트레스 관리, 위생 및 안전 기준을 고려한 운영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원칙은 고양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프로그램 설계에서도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고양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동물매개 읽기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 아동의 읽기 흥미와 태도 및 읽기 수행 능력의 변화와 프로그램 적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질적 변화를 탐색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고양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동물매개 읽기 프로그램의 가능성을 초기 단계에서 검토함으로써, 향후 비교집단을 포함한 후속연구와 확증연구 설계로 확장 가능한 기초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고양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동물매개 읽기 프로그램의 적용 가능성과 읽기 수행 능력의 변화를 탐색하기 위해 단일집단 사전·사후 검사 설계를 적용한 탐색적 예비연구이다.

대상자들은 프로그램 참여 전 한국어 읽기검사(KOLRA)를 실시하였으며, 프로그램 종료 후 동일한 검사를 실시하여 읽기 이해능력 변화를 확인하였다. 또한 양적 검사 결과와 함께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 나타난 아동들의 행동 및 정서적 변화를 관찰하여 질적 자료를 수집하였다.

대상자의 윤리적 보호를 위해 연구자의 소속 대학 생명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연구를 수행하였다(IRB승인번호: 7001355-202402-HR-766). 연구 참여 전 보호자에게 연구목적과 절차를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았으며, 프로그램 참여 아동에게도 연구 참여에 대한 설명 후 자발적 동의를 확인 받아 진행하였다.

2. 프로그램 운영자 및 치료매개고양이

고양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동물매개 읽기 프로그램을 진행한 연구자는 국제 동물매개중재 학술단체 IAHAIO의 가이드라인을 국내에 소개한 한국인간동물상호작용연구회(KHAI, 카이)와 IAHAIO 정회원 기관인 창파동물매개치료연구센터가 공동 운영하는 동물매개재활사 전문가 자격을 갖추고, 미국 비영리단체 인터마운틴 테라피 애니멀스(ITA)의 R.E.A.D. 수료증을 취득한 동물매개교육 전문가로 R.E.A.D.에서 리딩캣(Reading cat)으로 인증한 반려묘 레오와 함께 본 활동을 진행하였다.

연구는 치료매개고양이(Therapy Cat)가 상주하는 동물매개심리상담센터에서 실시하였으며, 고양이 복지를 고려하여 참여 아동이 연구장소를 방문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프로그램에서 활동한 고양이 레오는 연구자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수컷의 코리안숏헤어로 생후 초기부터 사람과 함께 지내며 공격적이지 않고 낯선 사람과 상호작용이 원활할 수 있도록 사회화 과정을 거쳐 성장해 왔다. 또한 동물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수의학적 관리와 공중보건학적 관리를 받고 있으며 2018년 한국동물매개심리치료학회에서 실시하는 치료도우미동물 평가에 합격하였다. 또한 레오는 사람과의 친화성이 높고 안정적인 사회적 행동 특성을 보이며, 특히 책 읽기 활동에서 참여 아동 곁에 머무르며 자연스럽게 상호작용하는 리딩캣(Reading cat)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3. 연구 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자는 ○○시 ○○구 소재 도서관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지자체 교육지원센터를 통해 모집하였다. 고양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동물매개 읽기 프로그램 참여자를 공개 모집한 결과 총 4명의 다문화가정 아동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희망하였다. 참여 아동 모두 프로그램 참여 전 실시한 한국어 읽기검사(KOLRA) 선별검사에서 추가 평가가 권장되는 기준에 해당하여 후속 핵심검사를 실시하였다.

대상자 모집 기준은 고양이에 대한 호흡기 또는 피부 알레르기가 없고, 초등학교 저학년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아동으로 연구 참여에 대한 보호자 동의와 아동의 자발적 참여 의사가 있어야

하며, 프로그램 전 회기에 참여 가능한 아동으로 설정하였다.

고양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동물매개 읽기 프로그램에 참여 의사를 보인 학생은 2명의 초등학교 2학년 남학생과 2명의 초등학교 3학년 여학생으로 모두 읽기 지원을 목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연구윤리를 고려하여 개인 식별정보는 익명 처리하였다.

〈표 1〉은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한국어 읽기 검사(KOLRA)의 선별검사 실시에 따른 사전 읽기 특성이다. 대상자 모두 다문화가정 8~9세 초등학생으로 보호자의 국적은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중국 등이었다.

〈표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KOLRA 선별검사 결과

참여 아동	성별	나이	부/모 국적	KOLRA선별검사		아동 특성
				읽기 설문지	낱말 읽기 유창성	
A아동	남	8	모 베트남	4	24	책을 읽을 때 목소리가 작고 대답을 할 때 자신감이 없음
B아동	여	9	모 베트남	5	24	마음이 급해 빨리 말하고 읽으나 정확성은 떨어짐
C아동	여	9	모 우즈베키스탄	7	17	읽기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으며 질문에 이해를 잘 못함
D아동	남	8	모 중국	5	22	질문과 관련 없는 답변을 하는 등 집중력이 낮은 모습을 보임

한국어 읽기 검사(KOLRA)에서 읽기 설문지와 낱말읽기 유창성 검사는 읽기 능력에 대한 스크리닝 목적으로 읽기 문제를 1차 선별하기 위해 사용된다. KOLRA 읽기 설문지는 읽기 관련 어려움을 선별하기 위한 도구로 설문 문항에서 예(yes)의 응답이 1개(1점) 이상인 경우 Fail로 추가 핵심 및 상세검사를 권장하며, 본 연구 대상자 4명 모두 4~7점으로 나타나 추가 평가 권장 기준에 해당하였다.

또한 읽기 능력 선별을 위한 낱말읽기 유창성 검사는 결과가 백분위 25미만이면 Fail로 읽기 문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 대상자 4명 모두 백분위 25미만으로 읽기 지원이 필요한 집단으로 분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여 아동들은 사전검사 과정에서 자신감이 부족하거나 성급하게 책 읽기, 읽기에 대한 부담감, 집중력 저하 등 읽기 수행과 관련된 행동적 특성을 보였다. 이러한 특성은 읽기 수행 능력뿐 아니라 읽기태도와 읽기동기 등 정의적 요인과도 관련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동물매개 읽기 프로그램을 적용한 배경을 설명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하였다.

4. 연구도구

연구에 사용한 한국어 읽기검사(KOLRA: Korean Language Based Reading Assessment) 도구는 초등학생의 읽기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표준화 검사도구로 해독과 문단글 읽기 유창성 그리고 읽기이해, 듣기이해를 활용해 읽기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읽기 설문과 언어 배경 정보를 함께 수집하여 아동의 읽기 수행 특성을 다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중재 방향을 설정하고 중재 효과를 확인하는 데 활용된다(배소영 외, 2015).

본 연구에서는 KOLRA 읽기장애 유무 및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 핵심검사의 해독, 읽기이해, 문단글 유창성 및 듣기이해 영역 사전·사후 변화를 비교하여 고양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동물매개 읽기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 아동의 읽기 수행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배소영 외(2015)가 제시한 KOLRA 핵심검사의 하위 문항의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표 2〉에 제시하였다. 해독(.913), 읽기이해(.907), 듣기이해(.883) 영역은 모두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보였으며, 국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독, 읽기이해, 유창성 및 듣기이해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 본 연구에서의 목적에 적합한 표준화된 도구로 판단하였다.

〈표 2〉 KOLRA 핵심검사의 내적일치도(Cronbach's α)

	해독	읽기이해	듣기이해
Cronbach's α	.913	.907	.883

자료: 배소영, 김미배, 윤효진, 장승민(2015), 『KOLRA 한국어 읽기검사 전문가 지침서』를 바탕으로 재구성

5.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본 프로그램은 책 읽기 활동을 평가 중심 과제가 아닌 동물과의 관계 기반 경험으로 재구성하여 아동의 읽기불안을 감소시키고 안정적인 읽기 경험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프로그램 구성은 문현민(2020)이 청각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양이에게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의 일부 내용을 참고하여 수정·보완하였으며 R.E.A.D. 프로그램의 운영 원리를 반영하여 개발하였다.

R.E.A.D. 프로그램은 또래의 평가나 비교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속도에 맞추어 읽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아동, 리딩애니멀, 동물매개교육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1:1 개별 중재를 기본 원리로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 역시 집단 활동이 아닌 개별 활동으로 운영하였으며, 각 회기는 참여 아동 1명, 치료매개고양이 1마리, 그리고 R.E.A.D. 교육을 이수한 동물매개교육 전문가 1명이 함께 활동하는 형태로 진행하였다.

〈표 3〉은 본 연구에서 운영한 고양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동물매개 읽기 프로그램의 회기별 구성 내용이다.

〈표 3〉 고양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동물매개 읽기 프로그램의 회기별 구성

회기	도입(10분) - 관계 형성 활동	전개(20분) - 고양이 매개 읽기 프로그램	마무리(10분)
1	프로그램 소개, 안전수칙, 고양이 소개	자기 소개 및 고양이와 인사하기	활동소감
2	고양이와 인사하며 간식주기	고양이에게 책 읽어주기	책 내용 및 활동소감
3	고양이에게 간식주며 만져보기	고양이에게 책 읽어주기	책 내용 및 활동소감
4	고양이에게 간식주며 교감 놀이하기Ⅰ	고양이에게 책 읽어주기	책 내용 및 활동소감
5	고양이에게 간식주며 교감 놀이하기Ⅱ	고양이에게 책 읽어주기	책 내용 및 활동소감
6	고양이의 긍정 행동 언어 이해하기	고양이에게 책 읽어주기	책 내용 및 활동소감
7	고양이가 좋아하는 빗질해주기	고양이에게 책 읽어주기	책 내용 및 활동소감
8	고양이가 좋아하는 마사지해주기	고양이에게 책 읽어주기	책 내용 및 활동소감
9	고양이의 부정 행동 언어 이해하기	고양이에게 책 읽어주기	책 내용 및 활동소감
10	고양이가 좋아하는 장난감으로 놀아주기	고양이에게 책 읽어주기	책 내용 및 활동소감
11	고양이와 함께 사진 찍기	고양이에게 책 읽어주기	책 내용 및 활동소감
12	고양이에게 편지 쓰기	고양이와 함께 찍은 사진 액자 꾸미고 편지 읽어주기	활동소감

모든 회기는 매주 2회씩 총 12회기를 동일한 기본 구조로 운영하였으며, 프로그램은 관계 형성 활동, 고양이에게 책 읽어주기 활동, 활동 마무리의 3단계로 구성하였다. 참여 아동은 프로그램 초기 동물매개심리상담센터 인근 도서관을 방문하여 자신의 흥미와 읽기 수준에 맞는 도서를 직접 선택해 대출하였다. 이후 읽은 도서를 반납하고 새로운 도서를 대출하는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도서관 이용 경험을 자연스럽게 확장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는 읽기 활동에 대한 주도성을 높이고 일상적 독서환경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도입 단계에서는 참여 아동이 치료매개고양이와 인사를 나누고 관찰하거나 간단한 상호작용 활동을 통해 치료매개고양이와의 친밀감 및 정서적 안정감을 형성한 후 읽기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읽기 활동은 참여 아동이 도서관에서 직접 선택한 도서를 중심으로 진행하였으며, 연구자는 아동의 연령과 읽기 수준을 고려하여 별도의 추천 도서를 준비하였다. 참여 아동은 자신이 선택한 도서와 추천 도서 중 원하는 책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읽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정 도서를 강요하지 않고 아동의 흥미와 선택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읽기 활동 중 동물매개교육 전문가는 직접적인 평가자나 교사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아동과 치료매개고양이의 상호작용을 지원하고 읽기 참여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

였다. 이를 위해 치료매개고양이의 관점에서 질문하거나 반응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아동의 읽기 참여를 촉진하였다. 예를 들어 “레오가 그 문장을 다시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아”, “레오가 그 단어의 의미가 궁금하다고 하는데 설명해 줄 수 있을까?”와 같은 방식으로 상호작용을 진행하였다.

또한 읽기 활동 이후에는 읽은 내용을 치료매개고양이에게 설명하거나 등장인물과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고, 고양이와의 활동 경험에 대한 소감을 공유하며 회기를 마무리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전문가가 직접 교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양이를 매개로 읽기 평가에 대한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고양이와 대화하는 형식으로 읽기 참여를 유도하여 치료매개고양이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자연스럽게 반복 읽기와 내용 이해를 경험하도록 하였다.

6.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프로그램 시작 전 프로그램 설명과 함께 진행한 사전검사와 프로그램 종료 후 사후검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읽기 관련 능력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한국어 읽기검사(KOLRA)의 핵심검사를 활용하였으며, 사전·사후 검사 결과를 비교하였다. 또한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참여 아동의 읽기 행동, 정서적 반응 및 치료매개고양이와의 상호작용 특성을 관찰하고 기록하여 질적 자료로 수집하였다.

양적 자료는 KOLRA 핵심검사의 해독, 읽기이해, 문단글 유창성 및 듣기이해 영역의 표준점수(Standard Score, SS)와 백분위 점수(Percentile Rank, PR)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참여 아동 수가 적은 탐색적 연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추론통계는 실시하지 않았으며, 사전·사후 점수 변화량(ΔSS)을 함께 산출하여 프로그램 참여 전후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질적 자료는 프로그램 운영 중 작성한 관찰기록일지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읽기참여 태도, 읽기에 대한 자신감, 읽기 지속성, 치료매개고양이에 대한 관심 및 상호작용 반응 등 프로그램 과정에서 관찰된 특징적인 변화를 중심으로 정리하여 양적 결과를 보완하는 자료로 활용하였다.

Ⅳ.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고양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동물매개 읽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다문화가정 아동 4명(A-D)의 KOLRA 핵심검사 사전·사후 표준점수 및 백분위 변화 분석을 수행하였다. 고양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동물매개 읽기 프로그램 참여 전후의 KOLRA 핵심검사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해독, 읽기이해, 문단글 읽기 유창성, 듣기이해 영역의 표준점수(SS)와 백분위

(PR)를 비교한 결과, 문단글 읽기 유창성의 일부 사례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향상 경향이 나타났다.

〈표 4〉 프로그램 참여 아동의 KOLRA 핵심검사 사전 · 사후 결과

아동	해독 SS(PR)	읽기이해 SS(PR)	문단글 읽기 유창성 SS(PR)	듣기이해 SS(PR)
A	88(21) →107(67) **Δ+19(+46)**	95(37) →111(77) **Δ+16(+40)**	99(48) →113(81) **Δ+14(+33)**	109(73) →117(87) **Δ+8(+14)**
B	89(24) →103(58) **Δ+14(+34)**	75(5) →94(34) **Δ+19(+29)**	94(34) →87(20) **Δ-7(-14)**	99(46) →107(68) **Δ+8(+22)**
C	65(1) →82(12) **Δ+17(+11)**	78(7) →94(34) **Δ+16(+27)**	83(13) →93(31) **Δ+10(+18)**	73(3) →86(17) **Δ+13(+14)**
D	84(15) →107(67) **Δ+23(+52)**	89(23) →108(70) **Δ+19(+47)**	98(44) →107(68) **Δ+9(+24)**	97(42) →117(87) **Δ+20(+45)**

1. 읽기 수행 능력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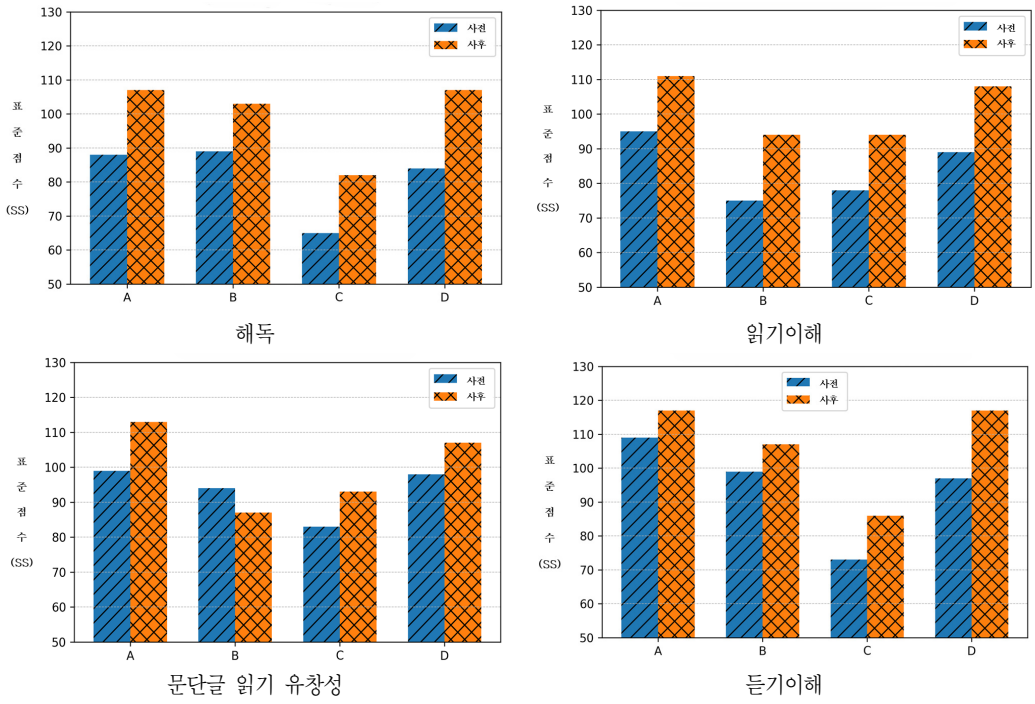
해독(Decoding) 영역에서는 참여 아동 4명 모두 점수가 향상되었으며, 사전 평균 81.5점에서 사후 평균은 99.8점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D아동은 84점에서 107점으로 증가폭이 23점 상승하였으며, A아동은 88점에서 107점으로 상승, C아동은 65점에서 82점으로 향상되어 심한 읽기부진 수준에서 경계 수준으로 변화하였다. 백분위 평균 역시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읽기이해(Reading Comprehension) 영역에서도 네 명 모두 사전 평균에 비해 높은 상승을 보였으며, 사전 평균 84.3점에서 사후 평균 101.8점으로 평균 17.5점이 증가하였다. 특히 B아동과 C아동은 평균 이하 범주에서 평균 범주로 이동하였고, D아동은 평균 상위 수준에 도달하였다. 읽기이해 영역에서는 백분위 점수 역시 전반적으로 향상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표준점수와 함께 상대적인 수행 수준 또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단글 읽기 유창성(Paragraph Fluency) 영역에서는 세 명의 아동이 향상되었으며, 평균이 93.5점에서 100.0점으로 증가하였다. 다만 B아동은 표준점수 7점이 감소된 모습을 보였으나, 초기 회기에서는 속독 및 오류가 빈번하게 나타났고 회기가 반복될수록 읽기 속도를 조절하며 정확성을 높이는 변화를 보였다. 분석 결과, 읽기 속도 원점수는 감소하였으나 정확도는 20점 향상되었다. 그럼에도 집단 평균은 93.5점에서 100.0점으로 증가하였으며, 해당 결과는 단순한 수행 저하보다는 읽기 전략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듣기이해(Listening Comprehension) 영역에서는 참여 아동 전원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사전 평균 94.5점에서 사후 평균 106.8점으로 평균 12.3점 증가하였다. 특히 D아동은 97점에서

117점으로 상승하여 평균 상위 범주에 포함되었고, C아동 또한 73점에서 86점으로 상승하여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났다.



※SS(Standard Score)는 평균 100, 표준편차 15를 기준으로 산출

〈그림 1〉 KOLRA 표준 점수의 사전 및 사후 검사 변화

〈그림 1〉은 참여 아동의 사전·사후 표준점수 변화를 시각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사전검사에서는 일부 아동이 해독 및 읽기이해 영역에서 평균 이하 범주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프로그램 종료 후 진행한 사후검사에서는 C아동의 해독 영역을 제외한 모든 항목이 평균 범위(SS 85~115)에 포함되었다. 특히 B와 C아동의 읽기이해 영역은 평균 이하 범주에서 평균 범주로 이동하였으며, D아동은 일부 영역에서 평균 상위 수준에 도달하였다.

〈표 5〉는 참여 아동 전체의 영역별 평균 표준점수 변화를 요약한 결과이다. 참여 아동의 표준점수 변화 결과, 해독과 읽기이해 영역에서 가장 큰 상승폭이 나타났으며, 듣기이해에서도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단글 읽기 유창성은 상대적으로 변화폭이 작았으나 집단 평균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5〉 KOLRA 평균 표준점수 변화

영역	사전 M±SD	사후 M±SD	변화량
해독	81.5±11.3	99.8±12.2	+18.3
읽기이해	84.5±9.0	101.8±8.7	+17.5
문단글 읽기 유창성	93.5±7.1	100.0±11.3	+6.5
듣기이해	94.5±15.4	106.8±14.8	+12.3

※ 변화량은 사후 평균에서 사전 평균을 뺀 값임.

종합적으로 고양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동물매개 읽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들은 해독과 읽기이해 영역에서 가장 뚜렷한 향상을 보였으며, 듣기이해에서도 일관된 상승 결과가 나타났다. 문단글 읽기 유창성은 개인차가 존재하였으나 집단 평균은 증가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참여 아동들의 읽기 수행 능력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다.

2. 프로그램 참여 과정에서 나타난 질적 변화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참여 아동들은 읽기 수행의 변화와 함께 정서적 반응 및 대인관계적 표현에서 다양한 변화 양상을 볼 수 있었다.

A아동은 초기 회기에서 작은 목소리로 책을 읽고 질문에 대한 응답을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프로그램 후반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읽기 활동에 참여하며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빈도가 증가하였다. 또한 회기가 진행될수록 연구자와의 관계 형성이 이루어지면서 가족관계와 일상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자발적으로 나누는 모습을 보였다.

예를 들어 A아동은 치료매개고양이가 간식을 먹는 모습을 보며 자신이 좋아하는 간식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였고, 전날 밤 형과 함께 해당 간식을 먹었던 경험을 이야기하였다. 이후 자연스럽게 아버지가 늦은 시간까지 근무하고 새벽에 출근하여 자주 만나기 어렵다는 점과 형이 아버지를 기다리느라 늦게 잠드는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이러한 모습은 치료매개고양이를 매개로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보다 자연스럽게 표현하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

이는 프로그램 환경에 대한 정서적 안정감과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편안함이 증가하였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할 수 있다. 읽기이해는 단순히 글자를 읽는 능력이 아니라 내용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과도 관련된다. A아동은 읽기이해 점수의 향상과 함께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보다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B아동은 프로그램 초기 읽기 속도에 집중하여 오류가 빈번하게 나타났으나, 회기가 진행될수록 정확성을 우선시하며 스스로 읽기 속도를 조절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변화는 읽기이해 표준점수의 향상과 함께 나타났으며, 읽기 과정에서 내용 이해를 위한 보다 신중한 접근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초기 상담 시 평소 산만하다는 부모의 보고가 있었던 B아동은 치료매개고양이의 행동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치료매개고양이가 머리와 볼을 문지르거나(번팅bunting) 다리에 꼬리를 감는(러빙rubbing) 행동을 보며 "레오는 왜 이렇게 가만히 있지 않아요?"라고 질문하는 등 고양이의 행동 의미를 탐색하였고, 이를 통해 고양이의 의사표현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활동 과정에서 B아동은 이러한 행동이 친밀감과 호감을 나타내는 사회적 신호임을 이해하게 되었으며, 자신의 산만한 행동 특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였다. 연구자가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이며 인사하는 레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지 질문하였을 때 쉽게 답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평소 자신의 행동에 대해 주변으로부터 들었던 평가를 떠올리는 과정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후 B아동은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며 활동에 집중하였고, 활동 종료 후 이동 과정에서도 이전보다 안정된 행동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인간-고양이 상호작용 과정에서 타인의 행동을 이해하는 경험이 자기이해와 자기조절 행동으로 확장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C아동은 초기 회기에서 읽기에 대한 부담감을 표현하고 질문 이해에 어려움을 보였으나, 프로그램 중반 이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빈도가 증가하였다. 또한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스스로 옷차림을 준비하고 치료매개고양이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하였다.

특히 치료매개고양이의 오드아이 특성에 관심을 보이며 "레오는 왼쪽 눈과 오른쪽 눈 색깔이 달라요?"라고 질문하였고, 오드아이가 레오만의 특별한 특징이라는 설명을 들은 후 자신의 눈 색깔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하였다. C아동은 "저도 친구들이 눈 색깔이 왜 갈색이냐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엄마가 다른 나라 사람이라서 눈 색이 다른 것이 부끄러운거라 생각했는데 특별해서 이야기해준 것 같아요. 제 눈 색도 예쁘죠?"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모습은 신체적 차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기보다 개인의 고유한 특성으로 재해석하고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자신에 대한 긍정적 표현과 자기수용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할 수 있다.

D아동은 초기 회기에서 고양이와의 신체 접촉을 어색해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회기가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눈맞춤과 접촉을 시도하였다. 특히 치료매개고양이가 무릎 위에 올라왔을 때 놀람과 기쁨이 섞인 반응을 보이며 조심스럽게 얼굴을 가까이하고 안아주는 모습을 보였다.

처음에 치료매개고양이의 몸을 만지며 "슬라임 같은 느낌이 난다(만지는 방향에 따라 몸이 유연하게 움직이고 형태가 자연스럽게 변하는 고양이의 신체 특성에 대한 표현)"고 이야기했었지만, 마사지 활동에서는 연구자가 고양이가 편안함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자 턱과 얼굴을 부드럽게 만져주면서 "레오가 기분이 좋아 웃는 것 같아요."라고 이야기하였다.

종결 회기에서는 치료매개고양이가 무릎 위의 담요를 좋아했던 경험을 떠올리며 직접 방석을 준비해 선물하였고, "폭신한 방석에서 편하게 앉아 있으면 좋겠어요."라고 이야기하였다. 또한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첫눈 오는 날 또 와도 되나요?"라고 질문하며 지속적인 만남을 희망하였

다. 이러한 모습은 치료매개고양이의 행동과 정서를 이해하고 이에 반응하는 공감적 행동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할 수 있다.

참여 아동들은 읽기 수행 능력의 향상 경향과 함께 읽기 활동에 대한 적극적 참여,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표현하는 행동 증가, 읽기 정확성 향상, 치료매개고양이와의 긍정적 상호작용 형성 등의 변화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읽기 수행 능력의 변화가 단순한 기술적 수행의 향상뿐 아니라 읽기 활동에 대한 정서적 안정감과 참여 동기의 변화와 함께 나타날 가능성을 의미한다.

Ⅴ. 논 의

1. 읽기 수행 향상의 의미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아동 4명을 대상으로 고양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동물매개 읽기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읽기 수행 능력의 사전·사후 변화를 탐색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해독, 읽기이해, 문단글 읽기 유창성, 듣기이해 영역에서 전반적으로 표준점수(Standard Score)가 상승했으며, 해독과 읽기이해 영역에서는 집단 평균이 각각 18.3점, 17.5점 상승하여 가장 뚜렷한 변화를 보였다. 또한, 참여자 일부는 평균 이하 범주에서 평균 범위로 이동하는 변화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동물매개 읽기 프로그램이 읽기 수행 향상뿐 아니라 읽기동기, 읽기태도 및 읽기 자신감과 같은 정의적 요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선행연구와 맥락을 같이한다(Hall et al., 2016; Henderson et al., 2020). Hall et al.(2016)은 Reading to Dogs 연구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읽기 수행 향상 효과는 연구마다 차이가 있으나 읽기불안 감소와 읽기 참여 증진은 비교적 일관되게 보고된다고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일부 아동은 초기 회기에서 속독과 오류빈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회기가 진행될수록 읽기 속도를 조절하고 정확성을 높이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변화는 평가하지 않는 청중으로 활동하는 고양이와의 상호작용이 읽기 상황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읽기 참여를 촉진하는 요인과 관련될 수 있다.

또한 본 프로그램은 단순한 낭독 활동에 그치지 않고 읽은 내용을 고양이에게 설명하거나 활동 경험을 공유하는 과정을 포함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이야기 내용을 재구성하고 의미를 조직하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읽기이해 향상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관찰된 읽기 수행 능력의 향상은 반복적인 낭독 경험뿐 아니라, 이야기 내용을 설명하고 대화하는 과정이 함께 작용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읽기 수행이 단순한 해독 능력만이 아니라 의미 구성과 언어적 상호작용 과정을 포함하는 복합적 능력임을 고려할 때, 프로그램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기초 근거를 제공한다.

2. 정의적 요인과 읽기 수행의 관계

본 연구에서는 해독과 읽기이해 영역에서 가장 뚜렷한 향상이 나타났으며, 일부 아동은 평균 이하 범주에서 평균 범주로 이동하는 변화를 보였다. 또한 프로그램 참여 과정에서 읽기 속도를 조절하며 정확성을 높이려는 시도, 자발적인 읽기 참여, 자신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행동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읽기 수행 변화가 단순한 반복 연습뿐 아니라 읽기태도와 참여 동기 등 정의적 요인과 관련될 수 있음을 뒷받침한다.

읽기 수행은 해독, 어휘, 문장 이해와 같은 인지적 요소뿐 아니라 읽기불안, 자기효능감, 읽기태도와 같은 정의적 요인의 영향을 동시에 받는다. 특히 읽기에 대한 흥미와 동기는 읽기 참여와 지속적인 읽기 경험을 촉진하며, 이는 읽기 능력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Wigfield & Guthrie, 1997). 또한 읽기 능력과 읽기동기는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어 긍정적인 읽기 경험은 이후 읽기 참여와 수행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Morgan & Fuchs, 2007).

처리효율성 이론(Eysenck & Calvo, 1992)에 따르면 불안은 작업기억 자원을 소모하여 인지적 수행 효율을 저하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읽기 상황에서 경험하는 긴장과 평가에 대한 부담은 읽기 이해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언어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경우 이러한 영향에 더욱 취약할 수 있다.

동물매개 읽기 프로그램은 이러한 평가적 맥락을 완화할 수 있는 접근으로 제안되어 왔다. Hall et al.(2016)은 동물을 '평가하지 않는 청중(non-judgmental listener)'으로 설명하며 읽기불안 감소와 읽기 참여 증진 효과를 제시하였고, Le Roux et al.(2014)은 개와 함께 읽기 활동을 수행한 아동에게서 읽기 수행 능력이 향상되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Henderson et al.(2020)은 프로그램 참여 아동들에게서 읽기의 즐거움, 자신감, 성취감과 같은 긍정적 경험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일부 아동은 별도의 지시 없이 고양이에게 보다 또박또박 읽어주려는 모습을 보였으며, 읽기 속도를 스스로 조절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행동을 관찰할 수 있었다. 특히 B아동은 고양이의 행동을 관찰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행동을 인식하고 조절하며 활동에 집중하는 모습을 나타냈으며, C아동은 치료매개고양이의 특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면서 자신의 특징에 대해서도 보다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인간-고양이 상호작용(Human-Cat Interactions, HCI)이 인간의 행동과 고양이의 사회적 반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와도 맥락을 같이한다(Haywood et al., 2021).

3. 고양이 매개 읽기 프로그램 적용 가능성의 확장

본 연구의 의의는 기존 Reading to Dogs 연구가 주로 개를 중심으로 수행되어 온 것과 달리, 동물

매개 읽기 프로그램의 적용 범위를 고양이로 확장하여 탐색하였다는 점에 있다. IAHAIO(2018)는 동물매개중재가 특정 종에 제한되지 않으며, 중재 목표와 동물의 적합성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고양이는 일반적으로 개에 비해 낮은 활동성과 비교적 조용한 상호작용 특성을 보이며(Vitale & Udell, 2019), 이러한 특성은 과잉각성이나 수행 불안을 경험하는 아동에게 보다 안정적인 상호작용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일부 아동은 초기 긴장 상태에서 점차 안정적으로 읽기 활동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고양이와의 반복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였다.

물론 본 연구만으로 고양이가 개보다 효과적이라고 결론지을 수는 없다. 국내 Reading to Dogs 연구에서도 아동들은 읽기에 대한 흥미와 참여도가 향상되고, 동물과의 상호작용을 긍정적으로 경험한 것으로 보고되었다(이용준, 정혜승, 2024). 본 연구에서도 고양이와 활동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참여 양상을 보인 점에서, 고양이 역시 동물매개 읽기 프로그램의 매개동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뒷받침하며, 특히 개에 대한 공포가 있거나 높은 자극 수준에 민감한 아동에게는 대안적인 접근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총 12회기 동안 중도 탈락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모든 참여 아동이 프로그램을 완료하였다. 이는 고양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 아동에게 수용 가능한 형태의 읽기 지원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향후 동물매개 읽기 프로그램의 적용 대상을 확장하는데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Ⅵ.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고양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동물매개 읽기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읽기 수행 능력의 변화를 탐색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참여 아동들은 해독, 읽기이해, 듣기이해 영역에서 전반적인 향상 경향을 보였으며, 일부 아동은 평균 이하 범주에서 평균 범주로 이동하는 변화가 나타났다. 또한 프로그램에서 읽기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자기조절 행동, 읽기 참여 증가,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모습 등 참여 아동들의 질적 변화를 함께 관찰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탐색적 수준에서 해석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단일집단 사전・사후 설계를 적용하였으며 소수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자연발달이나 반복측정 효과를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고 결과의 일반화에도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고양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동물매개 읽기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읽기 수행 능력의 변화 양상을 탐색하였다는 점에서 기초 자료로써 의의를 가진다.

첫째, 본 연구는 읽기 기능 향상을 위해 인지적 요소뿐 아니라 정의적 요인을 함께 고려하는 접근의 필요성을 지지한다. 참여 아동들에게서 관찰된 읽기 참여 증가와 긍정적 상호작용 경험은 정의적 요인이 읽기 수행 과정과 관련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본 연구는 기존의 개 중심 Reading to Dogs 연구에서 확장하여 고양이를 매개로 한 동물매개 읽기 프로그램의 가능성을 탐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특히 고양이와의 비교적 조용하고 안정적인 상호작용은 개에 대한 공포나 높은 자극 수준에 민감한 아동에게 대안적 교육 접근으로 고려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일부 아동은 평균 이하 범주에서 평균 범주로 이동하는 변화를 보였으며, 이는 단순한 점수 상승을 넘어 교육적으로 의미있는 변화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읽기취약 아동 대상 동물매개 읽기 프로그램의 실천적 적용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2. 제언

본 연구는 탐색적 연구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결과 해석에 신중함이 요구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무작위 배정과 비교집단을 포함한 실험설계를 적용하여 동물매개 읽기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보다 엄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언어적·사회문화적 배경을 가진 다문화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표본 규모를 확대하고 하위집단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이는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한편, 본 연구의 질적 결과는 프로그램 운영자이자 관찰자인 연구자의 현장기록을 바탕으로 해석되었으므로 관찰자 편향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향후 연구에서는 복수 관찰자, 보호자 보고 및 면담자료를 함께 활용하여 결과의 신뢰성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할 것을 기대한다.

더불어 본 연구는 읽기 수행 능력의 변화에 초점을 두었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읽기불안, 자기효능감, 읽기태도 및 읽기동기와 같은 정의적 변인을 함께 측정하여 동물매개 읽기 프로그램의 작동 기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검증이 필요하다. 나아가 추적검사를 포함한 종단설계를 통해 중재 효과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향후 연구에서는 개 중심으로 축적된 동물매개 읽기 프로그램 연구를 고양이를 포함한 다양한 동물종으로 확장하여 비교·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와 고양이 기반 프로그램의 특성과 적용 조건을 비교하는 연구를 통해 동물종별 특성을 반영한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더불어 동물복지와 인간-고양이 상호작용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표준 운영지침 및 프로그램 모델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 고 문 헌

고용환, 박시균 (2023).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한국 사회적응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 사회 문제점과 차별 경험을 중심으로.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 15, 29-55. https://doi.org/10.22957/mses.15..202311.29

문현민 (2020). 고양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동물매개치료가 청각장애아동의 사회・정서적응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보건・보완의학대학원.

배소영, 김미배 (2010). 초등 저학년 다문화가정 아동의 읽기와 언어. Communication Sciences and Disorders, 15(2), 146-156.

배소영, 김미배, 윤효진, 장승민 (2015). KOLRA 한국어 읽기 검사 전문가 지침서. 서울: 인싸이트.

백별아, 송진영 (2019). 다문화가정 자녀의 다문화교육에 관한 질적 연구. 교육문화연구, 25(1), 699-724. https://doi.org/10.24159/joec.2019.25.1.699

신진아 (2012).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기반한 다문화・탈북 가정 학생의 교과별 성취 특성 분석.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여성가족부 (2024). 2024년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 발표. 세종: 여성가족부.

이용준, 정혜승 (2024). 초등학생들의 동물 매개(Animal-assisted) 읽기 활동 연구: '개에게 책 읽어주기(Reading to Dogs)' 참여 사례 및 효과를 바탕으로. 독서연구, 71, 283-318. https://doi.org/10.17095/JRR.2024.71.9

장영은, 성미영, 장문수, 김성석, 임아름 (2019).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 관련 학술연구 동향 및 내용 분석. 다문화와 평화, 13(3), 40-63. https://doi.org/10.22446/mnpisk.2019.13.3.003

통계청 (2024). 2024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대전: 통계청.

한국교육개발원, 교육부 (2025). 2025 교육기본통계 주요 결과. 진천: 한국교육개발원.

허순영, 홍현진 (2013). 동물매개치료를 통한 독서부진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독서증진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4(3), 181-198. https://doi.org/10.14699/kbiblia.2013.24.3.181

Americ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2019). Guidelines for Animal-Assisted Interventions. Schaumburg: Americ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215. https://doi.org/10.1037/0033-295X.84.2.191

Cleary, M., West, S., Thapa, D. K., & Kornhaber, R. (2023). Putting cats on the spectrum: A scoping review of the role of cats in therapy and companionship for autistic adults and children. Issues in Mental Health Nursing, 44(6), 505-516. https://doi.org/10.1080/01612840.2023.2195509

Ellis, S. L. H., Rodan, I., Carney, H. C., Heath, S., Rochlitz, I., Shearburn, L. D., Sundahl, E., & Westropp, J. L. (2013). AAFP and ISFM feline environmental needs guidelines. Journal of Feline Medicine and Surgery, 15(3), 219-230. https://doi.org/10.1177/1098612X13477537

Eysenck, M. W. & Calvo, M. G. (1992). Anxiety and performance: The processing efficiency theory. Cognition and Emotion, 6(6), 409-434. https://doi.org/10.1080/02699939208409696

Friesen, L. (2009). Exploring animal-assisted programs with children in school and therapeutic contexts. Early Childhood Education Journal, 37(4), 261-267. https://doi.org/10.1007/s10643-009-0349-5

Friesen, L. & Delisle, E. (2012). Animal-assisted literacy: A supportive environment for constrained and unconstrained learning. Childhood Education, 88(2), 102-107. https://doi.org/10.1080/00094056.2012.662124

Guthrie, J. T. & Wigfield, A. (2000). Engagement and motivation in reading. In M. L. Kamil, P. B. Mosenthal, P. D. Pearson, & R. Barr (Eds.), Handbook of Reading Research. Vol. 3. Mahwah: Erlbaum, 403-422.

Hall, S. S., Gee, N. R., & Mills, D. S. (2016). Children reading to dogs: A systematic review of the literature. PLoS ONE, 11(2), e0149759. https://doi.org/10.1371/journal.pone.0149759

Haywood, C., Ripari, L., Puzzo, J., Foreman-Worsley, R., & Finka, L. R. (2021). Providing humans with practical, best practice handling guidelines during human-cat interactions increases cats' affiliative behaviour and reduces aggression and signs of conflict. Frontiers in Veterinary Science, 8, 714143. https://doi.org/10.3389/fvets.2021.714143

Henderson, L., Grové, C., Lee, F., Trainer, L., Schena, H., & Prentice, M. (2020). An evaluation of a dog-assisted reading program to support student wellbeing in primary school.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118, 105449. https://doi.org/10.1016/j.childyouth.2020.105449

IAHAIO (2018). The IAHAIO definitions for animal assisted intervention and guidelines for wellness of animals involved in AAI. IAHAIO.

Intermountain Therapy Animals (2020). Reading Education Assistance Dogs® (R.E.A.D.®) Team Training Manual (15th ed.). Salt Lake City: Intermountain Therapy Animals.

Kim, W.-J. & Yim, D. (2024). Exploring the influence of the home literacy environment

on early literacy and vocabulary skills in Korean-English bilingual children. Frontiers in Psychology, 15, 1336292. https://doi.org/10.3389/fpsyg.2024.1336292

Kirnan, J., Siminerio, S., & Wong, Z. (2016). The impact of a therapy dog program on children's reading skills and attitudes toward reading. Early Childhood Education Journal, 44, 637-651. https://doi.org/10.1007/s10643-015-0747-9

Le Roux, M. C., Swartz, L., & Swart, E. (2014). The effect of an animal-assisted reading program on the reading rate, accuracy and comprehension of grade 3 students. Child and Youth Care Forum, 43, 655-673. https://doi.org/10.1007/s10566-014-9262-1

Morgan, P. L. & Fuchs, D. (2007). Is there a bidirectional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reading skills and reading motivation? Exceptional Children, 73(2), 165-183. https://doi.org/10.1177/001440290707300203

Pet Partners (2015). Standards of Practice for Animal-assisted Interventions. Bellevue: Pet Partners.

Steel, J. (2024). Reading to dogs as a form of animal-assisted education: Are positive outcomes supported by quality research? Literacy, 58(1), 102-119. https://doi.org/10.1111/lit.12345

Vitale, K. R. & Udell, M. A. R. (2019). The quality of being sociable: The influence of human attentional state, population, and human familiarity on domestic cat sociability. Behavioural Processes, 158, 11-17. https://doi.org/10.1016/j.beproc.2018.10.026

Wigfield, A. & Guthrie, J. T. (1997). Relations of children's motivation for reading to the amount and breadth of their reading.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9(3), 420-432. https://doi.org/10.1037/0022-0663.89.3.420

•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Bae, Soyeong & Kim, Mibae (2010). Reading and language of Korean lower-grade elementary school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Communication Sciences & Disorders, 15(2), 146-156.

Bae, Soyeong, Kim, Mibae, Yun, Hyojin, & Jang, Seungmin (2015). KOLRA Korean Language-based Reading Assessment Professional Manual. Seoul: Inpsyt.

Baek, Byeolah & Song, Jinyeong (2019). A qualitative research on multicultural education

of elementary students of multicultural families.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25(1), 699-724. https://doi.org/10.24159/joec.2019.25.1.699

Go, Yonghwan & Park, Sigyun (2023). A qualitative study on the social adaptation experiences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Focusing on social problems and discrimination experiences in Korean society. Multi-cultural Society and Education Studies, 15, 29-55. https://doi.org/10.22957/mses.15..202311.29

Heo, Sunyeong & Hong, Hyeonjin (2013). A study on the effects of animal-assisted therapy on self-esteem and reading improvement of children with poor reading.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4(3), 181-198. https://doi.org/10.14699/kbiblia.2013.24.3.181

Jang, Yeongeun, Seong, Miyeong, Jang, Munsu, Kim, Seongseok, & Im, Areum (2019). Trends and content analysis of language-related academic research on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Multiculture & Peace, 13(3), 40-63. https://doi.org/10.22446/mnpisk.2019.13.3.003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 Ministry of Education (2025). Major Results of 2025 Basic Education Statistics. Jincheon: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Lee, Yongjun & Jeong, Hyeseung (2024). A study on animal-assisted reading activities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Based on participation cases and effects of reading to dogs. Journal of Reading Research, 71, 283-318. https://doi.org/10.17095/JRR.2024.71.9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24). Announcement of the Results of the 2024 National Survey of Multicultural Families. Sejong: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Moon, Hyunmin (2020). The Effects of Animal-assisted Therapy Involving Reading to Cats on Social-emotional Adjustment and Self-esteem in Children with Hearing Impairment.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Health and Complementary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Shin, Jina (2012). Analysis of Subject-specific Achievement Characteristics of Students from Multicultural and North Korean Defector Familie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National Assessment of Educational Achievement. Seoul: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Statistics Korea (2024). Multicultural Vital Statistics in 2024. Daejeon: Statistics Korea.